



우리시대 참스승

대경중학교 교장 김삼수

# 명품학교 육성 위해 기초·기본교육 충실

## 지역의 인사 초빙해 특강교육 계획에 협조 기대

“육상부와 관악부를 오는 5월중에 창단해 초·중·고 연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6년9월 대경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김삼수(56·사진) 교장은 대경중학교를 명품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소홀을 관내 4개 중학교중 특색 있는 학교육성시책으로 특수학급 운영을 들 수 있다. 현재 1학년인데 앞으로 2학급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방과후 사범학교로 원어인 강사 초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특히 기수련을 통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 학생들이 매일 아침 8시20분부터 10분 동안 명상을 시작으로 하루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대경중학교의 또 하나 특색은 3학년생 이상으로 한 보충수업이다. 매일 2시간씩 5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100% 참석하여 실력을 다지고 있는데 방과후에 5시20분까지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1학기에는 오후 9시까지, 2학기에는 오후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한다.

또 어머니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교실을 순회하도록 하여 학생들간의 사소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식당에서도 어머니 2명이 교내로 식탁정소는 물론 식사지도를 해주고 있다.

신설학교로 조경이 안돼 있어 가정통신문을 보내 1학생 1그루 나무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70~8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기도 했다.

버스정류장과 학교위치가 근접거리에 있



어서인지 대경중학교에서 각종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소홀을 중삼학교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김 교장은 또 영어교과서 본문 통째로 외워서 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학교 시설명칭을 모두 영어로 써서 붙여 학생들이 늘 영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돕보이는 아이디어다.

학생들에게 밤샘공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쉬는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밤샘공부를 희망자에 한해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실 바닥에 온돌을 깔았다.

김 교장은 의정부부과학교등학교가 개교한

이후 포천 관내 중학교에서 단 1명도 의정부과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없다고 지적하고 대경중학교에서 의정부과학교에 학생을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월 1회씩 학부모를 초청해 공개수업을 통해 내 아이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 교장은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한전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수도공고, 단국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1978년3월 서울수도공고에서 교직에 입문한 후 1978년3월 의정부공고, 청평공고, 인양평촌공고, 남양주공고에서 근무하다가 교감으로 승진해 관인중학교, 경복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진해 대경중학교에 2006년9월 부임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교직생활을 통해 “자기한테 맞는 원하는 분야를 전공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기본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때그때 충실히 살자, 맞춰서 충실히 살자”를 좌우명으로 삼은 김 교장은 “명품학교로 성장하게 되면 의정부에서도 학생들이 물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현재 4층으로 설계된 학교 증축을 위해 포천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인사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밝히는 김 교장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경중학교를 실력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신바람 교육공동체 한가족

## 포천 38선 마라톤 대회 참가기 ... 전영모(이곡초 교사)

이곡초등학교에서는 2007년도 테마로 ‘살림살이’ 교육활동을 통한 신바람이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살림살이’ 교육활동이란? 죽어있는 교육, 침체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라 ‘살림’의 교육, 살아있는 즐거운 교육, 삶의 교육을 ‘살림살이’ 교육활동이라 한다.

이러한 ‘살림살이’ 교육활동을 통해 침체된 학교교육에 새로운 신바람을 불어넣어 교육의 삼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명나는 ‘살림살이’ 신바람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다.

‘살림살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단결되어 하나 된 모습과 맘을 같이 흘리며 건강과 화목, 협동, 가족과 학교, 주변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이번 38선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모두 70여명의 이곡 신바람 교육공동체 한가족이 참가하여 같이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해 한 명의 나오자 없이 모두 완주에 성공함으로써 마라톤을 완주하며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마라톤 참가 후에는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이곡 신바람 교육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신바람이 나는,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즐거운 교육 ‘살림살이’ 교육활동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곡초등학교는 6학급에 전교생 131명의 소규모 농촌학교이다. 이런 소규모 농촌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26대 전국표 교장선생님의 부임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학교 내에 산림교육 박물관, 물놀이장, 미니온실, 실의 폴포장, 학생 및 교사 밴드실, 교원사택, 다목적 실내체육관(2007년 완공 예정), 어학실, 컴퓨터실, 쾌적한 도서관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 명품학교로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 하나로 뭉쳐 열심히 노력하여 각종 포천시 및 경기도 대회에 나가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을 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바람이 있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이 즐거워 신바람 나는 학교, 선생님이 즐거워 신바람 나는 학교, 학부모가 즐거워 신바람 나는 학교고 교육의 삼주체 모두가 만족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살림살이’ 학교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大學生이 音樂천재 키운다’

## 대진대 음악사랑나눔봉사회 4년째 教育



화제가 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음악사랑 나눔봉사회(회장 이아름)는 2004년도부터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개인레슨과 이론, 합창, 클래식 감상, 리코더, 단소연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동안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알게된 학생들 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선단동사무소로부터 학생들을 추천 받아 직접 교육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3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 지난해부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1일 두 차례 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상과 우수상

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해 1타입에 4명씩 개인레슨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음악사랑나눔봉사회 이아름(사진·4학년) 회장은 “개인레슨 방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10~15명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미미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자 크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음악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한 결과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이 회장은 “교수님들이 간식도 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미래 학생들과 협조하여 미술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음악사랑나눔회 회원 9명이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는데 처음에는 봉사회 회원이 부족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힘들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대진대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

다”며 “동아리단체로 등록하면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동아리 단체로 등록하면 대외적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윤종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5. < 국제전시장 방문 > : 둘러보기 (2)
  - \*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가?
  - 퀴스미, 두유노우웨어스 더토일렛?
  - <Excuse me, do you know where's the toilet?>
  - \* 여긴 제2전시관이지요, 5전시관에 있는데요
  - 디시스터출발버투,
  - 유엔화인뎃 인더홀화인
  - <This is the hall No #2.
  - you can find it in the hall #5.?
  - \* 이 뽕풀과 카다복을 가져가도 됩니까?
  - 캐나이테이커 뽕풀앤캐대룩?
  - <Can I take a sample and catalogue?>
  - \* 예, 명함 한 장 주시지요
  - 우유기버스 유어비즈니스?
  - <Sure, would you give us your business card?>
  - \* 실례 합니다, 출구가 어디 입니까?
  - 퀴스미, 웨어리스터 웨이아웃?
  - <Excuse me, where's the wayout?>
  - \* 글세요, 나도 찾고있는 중입니다
  - 웰, 댓스위라이투킹휘나우
  - <Well, that's what I'm looking for now.>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dlyoon@nate.com

## 대진대, 현대홈쇼핑과 전략적 제휴 추진

대진대학교는 4월 3일 현대홈쇼핑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진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된 현대홈쇼핑 배너공고를 통해 불건을 구매하면 가격의 2%가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대학의 재정 확충과 현대홈쇼핑의 이익금 사회 환원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성립된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구성원 및 동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대학 발전기금을 내 학교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e-러닝 IT 교육콘텐츠 기증

### 대진대·(주)중앙 ICS 산학협력 체결식



대진대학교는 4월3일 오전11시30분 대진대학교 본관 2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주)중앙ICS와 e-러닝 산학협력 협약 체결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전문기술 인력의 기술교육과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 교육환경 구축과 산업체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앙ICS로부터 e-러닝 IT 교육콘텐츠

를 기증 받아 교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중앙ICS는 프로그래밍, 디지털디자인, 컴퓨터기초의 IT관련 29 과목 콘텐츠를 기증하고, 대진대학교는 이를 교수학습지원센터의 VOD서버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금주초등학교 통학차량 전달식

###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책

포천시는 4월6일 금주초등학교 해 강태선 포천시의회 부의장, 김강당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 영상 금주초등학교장 등 관내 기관



단체장과 주민, 학생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주초등학교 통학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학차량 전달식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밖에도 수영장과 사우나, 축구장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체육향상과 여가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우리시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소각시설이 영종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설치됐다”며 “통학차량 이용으로 금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농촌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대진대·한국마사회 공동으로 전달

4월3일 오후3시 본관 2층 총장실에서 KRA(한국마사회)와 함께 하는 농촌희망장학생(성적우수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농촌희망장학생(성적우수장학)은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및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KRA와 함께 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이며, 이천수 총장의 노력으로 지난해 4월 본교에 유치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천수 총장은 수혜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백승현(연영 02) ▶유호원(통신 01) ▶이효선(컴공 05) ▶조성원



(법학 0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 함께 공부해요 》

### 明長幼之序 ⑩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論語에 日 鄉人飲酒 에 杖者出 이어든 斯出 어서다.

논어에 왓 향인 음주에 장자출 이어든 사출 어서다.

杖 지팡이 장. 斯 이사. 사물을 가르치는 대명사.(당시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인 마을에서 다닐 때 지팡이를 짚었음)

논어에 말하기를 “마을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일어나서 나가면 (공자도) 곧 일어나 나갔다” 하였다.

“마을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노인이 일어나 나가지 않으면 연소한자가 감히 먼저 일어나 나가면 감히 뒤에 남아있지 못하는 것이 예법이다. 노년도 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을 염두에 두어서 행동을 신중히 해야 했다.” 이상은 어른과 어린이의 질서를 밝힌 것이다.

문의 : 011-354-6485



양 주 수 본지 지문위원장